

# 현대 건축, 문화 그리고 유리

강희성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hskang@spacea.com)

## 현대 문명과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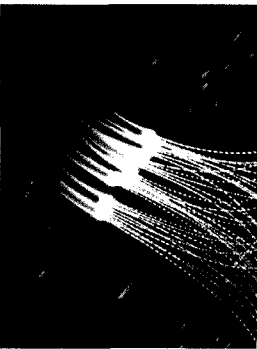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이 가진 특징 혹은 역할 가운데 하나는 건축물을 통해 건축가가 의도한 무언가(개념, 의지 등)에 대한 표현성에 대한 부분이다.

인류의 역사동안 건축물을 통한 표현(방식)은 당대의 재료 혹은 재료의 사용 방법에 의해 변화하여 왔다. 이처럼 건축에 있어 표현성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하여 왔는데, 다원주의 혹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 건축에 있어서 표현성은 유독 사용되어지는 재료의 속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건축물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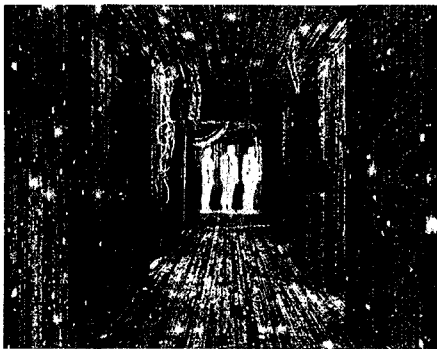
용되어지는 재료의 범위가 과거와 달리 훨씬 넓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현대 건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는 여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의 경향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현대 문명은 정보통신 수단인 미디어(media)에 근거한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현대 건축의 경향 역시 그런 문화적 속성을 배경에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글은 정보통신 수단인 미디어(media)에 근거한 문화적 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대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많은 재료중 하나인 “유리”를 통해 오늘날의 문화적 흐름에 대응하여 건축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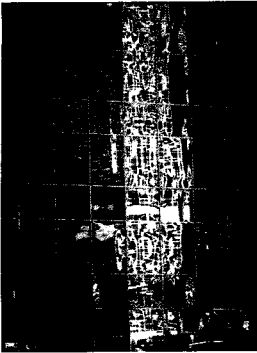
[그림 1] 정보통신 문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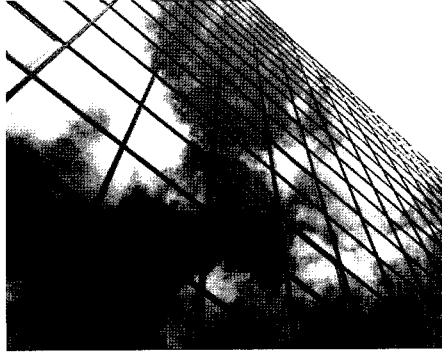
[그림 2] 정보통신 문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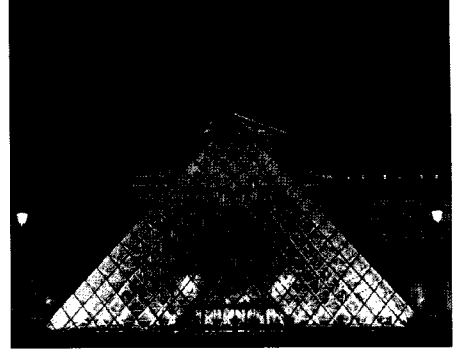
[그림 3] 정보통신 문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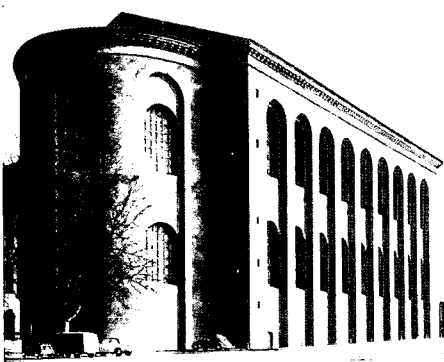
[그림 4] 도시의 모습



[그림 5] 스카이스크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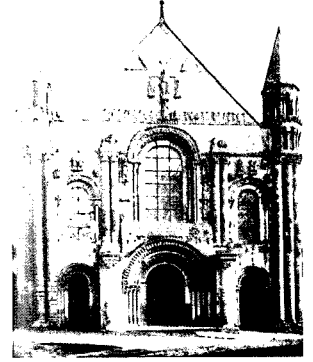
[그림 6] 아이엠페이(I.Pei), 루브르 박물관



[그림 7] 콘스탄틴(constantine) 성당, 14세기



[그림 8] 성 피에르 성당, 13세기



[그림 9] 성 마네 성당, 12세기

런 의도들과 현대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간단하게나마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건축의 한 단면이나마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 건축의 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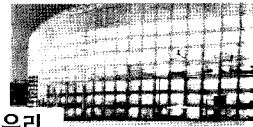
건축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는 전통적 방식은 빛과 그림자의 예리한 대비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1)</sup>. 거기서 나타나는 명암의 차이는 볼륨과 건물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건축가가

의도한 표현 방식의 주요 모티브로 사용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18세기 말 19세기의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료의 발견 및 발달에 근거하여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축의 표현성 역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산업 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는 건축가가 의도한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실험되고, 사용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1)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방식은 주로 산업 혁명 이전의 시기에 사용된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18세기 이전의 방법을 말하며, 이는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당시 기술과 재료의 한계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 2)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건축물의 주재료인 돌이 주요 외피로서 사용됨에 기인한다. 물론 다른 재료 예를 들면, 나무 등에 의한 재료는 논의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건축사의 통시적 관점에 근거한 것으로 지역적/기후적 한계에 근거한 재료 사용은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 표현 요소로서 유리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 혁명 이후 근대 건축을 거쳐 현대 건축으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건축의 외피는 표현 수단으로서 재료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개념적 변화까지 수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건축의 외피는 건축 구조의 한 부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표현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sup>3)</sup>, 나아가 현대 건축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재료를 통해 건축의 전체 의도 혹은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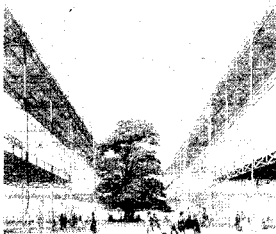
예로 19세기 이전에는 건물의 입면은 단지 평면과 단면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건축물의 외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였으나, 이런 사고는 19세기 말 이후,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발달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외피는 구조나 평면 계획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축의 한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서 외피로서 유리의 가능성은 또 다른 건축적, 개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물론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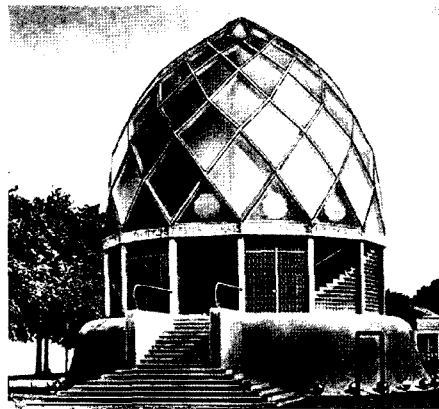
에도 건축물에 유리의 사용은 다양하게 실험되고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런 사용은 내부로 빛을 들이기 위한 기능적 역할에 한정되거나 혹은 종교적 표현의 극대화를 위한 건축 외피의 한 요소, 재료 가운데 하나로써 사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유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예로 1852년 조셉 팩스톤(J.Paxton)의 수정궁(crystal palace)은 유리는 재료를 통한 새로운 건축적 제안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정궁에 사용된 유리는 단순히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빛을 제공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건축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후 1924년 부루노 타우투(B.Taut)의 유리 파빌리온과 1929년 미스(Mies van de Rhoë)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건축물의 외피가 아닌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사이의 새로운 개념까지 제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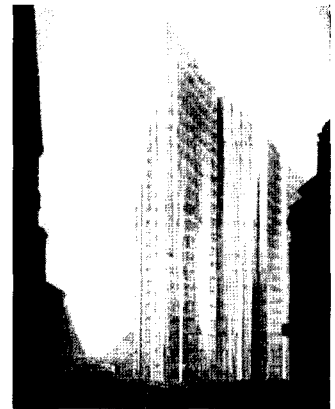
즉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이라는 근대적 공간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런 개념은 현대건축에 이르러서는 “투명성”의 표현으로 유리를 이용한 건축의 한 부류 혹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림 10] 조셉 팩스톤 (J.Paxton) 수정궁(crystal pa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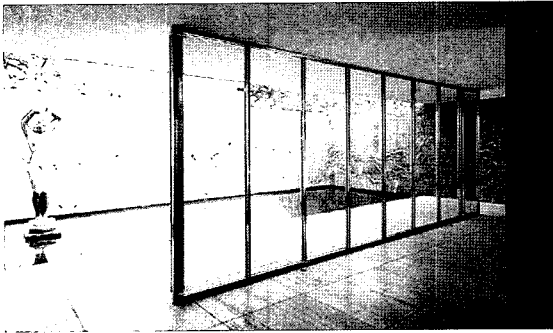
[그림 11] 브루노 타우투(B.Taut), 유리 파빌리온



[그림 12] 미스(Mies van de Rhoë), 유리 마천루

3) 단적인 예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건축의 5원칙”에서 자유로운 입면을 제안하면서 건축 구조와 무관한 독립적인 요소로서 입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피가 건축물 자체와 서서히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한 외피에 대한 사고와 최근의 건축 경향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가 의도한 것은 외피에 대한 사고라기보다는 외피와 구조, 외피와 다른 독립 면 사이의 공간에 대한 시각이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앞서 말한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을 통한 “투명성”의 개념은 현대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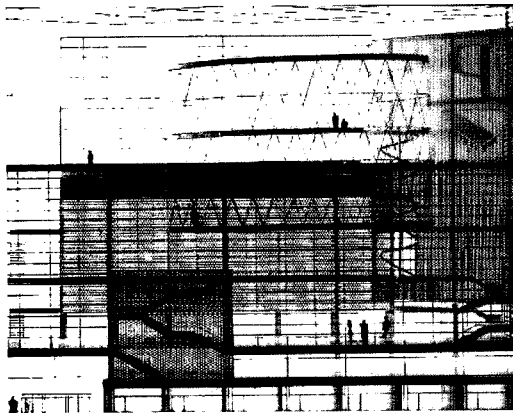


[그림 13] 미스(Mies van de Rhoë), 바로셀로나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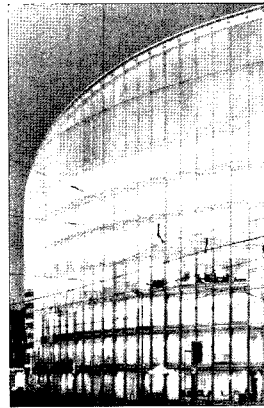
유리에 바탕을 둔 외장재의 사용을 통한 “투명성” 개념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개방 구조를 근거로 형태적 무거움을 제거하거나 유리라는 재료가 지닌 물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유리가 지닌 “투명성”의 속성과 함께 유리가 만들어내는 있는 듯 없는 듯 한 경계를 통해 “인식적 경계”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접근도 볼 수 있다. 이는 투명성과 마찬가지로 유리라는 재료적 속성을 이용해 때로는 경계를 흐릿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적 영역을 설정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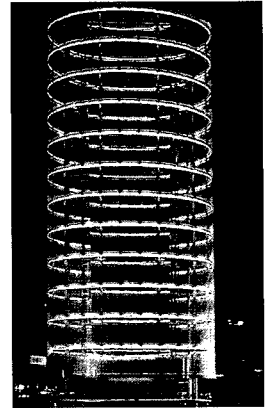
유리를 최종 외피로 사용하는 최근의 건축 경향은 어떤 면에서 콜린 로우(C.Rowe)가 말한 “가시적 투명성” 이론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 콜린 로우(C.Rowe)는 그의 이론에서 “유리는 하



[그림 14] 후미히코 마키(F.Maki), Congres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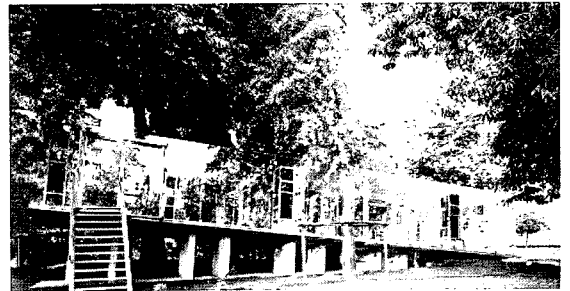
[그림 15] 노먼 포스터(N.Foster), B.P.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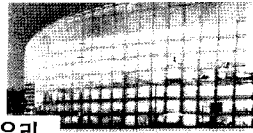
[그림 16] 도요 이토(T.Ito), 바람의 타워



[그림 17] 세지오 가지마(S.Kazuyo), 기타가타 주거



[그림 18] 버나드 츠미(B.Tschumi), 유리 비디오 갤러리



나의 투명한 막이 되고, 그 이면에 특별한 오브제를 통해 그 깊이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건축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말한다.

즉 과거 콘크리트와 벽돌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공간을 창출했던 것과 달리 유리를 사용하는 최근의 건축 경향은 피막으로서 벽체의 고정화된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공간 확장의 개념으로 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리는 의장적 역할뿐만 아니라 건축가와 건축물 자체의 조형 철학을 표현하는 매개 재료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대 문명과 유리

앞서 말한 최근의 건축 경향은 기술의 발달의 도움으로 유리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외피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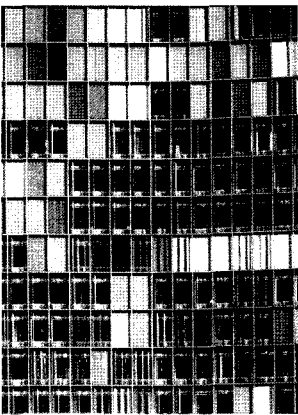
예로 유리와 유리 사이의 깊이감에 대한 표현, 역으로 유리 외피에 유리의 속성을 제거하려는 표현, 유리를 통해 다른 재료적 성격을 표현, 유리 외피와 다른 재료의 결합 등 다양한 시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시도 가운데서 최근에는 특히 유리가 지닌 재료적 속성에 현대 문명의 문화

적 속성이 가미된 새로운 방향, 즉 “비물질화된 표현성”에 대한 실험이 가장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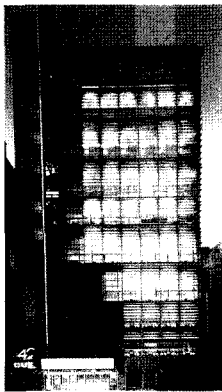
“비물질화된 표현성”이란 앞서 말한 “투명성” 혹은 “인식의 경계”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투명성”이나 “경계”의 개념이 유리라는 재료의 특성이 지닌 투과성에 근거한 공간 개념의 하나로 건축에서 사용되었다면, “비물질화된 표현성”이란 개념은 현대 문명의 문화적 특성과 연관지어 건축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도요 이토(Toyo Ito)는 자신의 작품 센다이(Sendai) 미디어텍(Mediatheque)을 설명함에 있어 유리가 지닌 속성을 현대 문명의 상징인 미디어 정보가 지닌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특성에 비교하며, 외부의 표현 요소로 사용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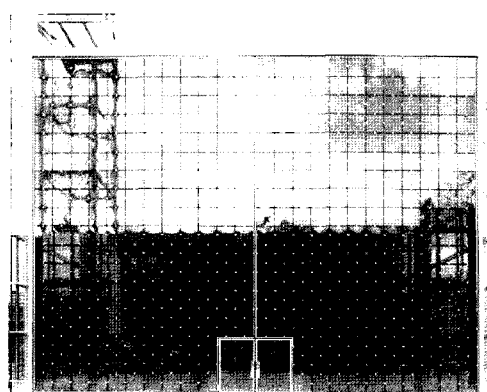
현대 문명은 미디어에 근거한 정보화 사회로 모든 의사 소통이 과거와 달리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접속이 가능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대 문명의 문화적 특성은 유리가 지닌 존재함과 동시에 투과가 가능하다는 재료적 속성과 결합하여 현대 건축의 주요 경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19] 후튼(S.Hutton), GSW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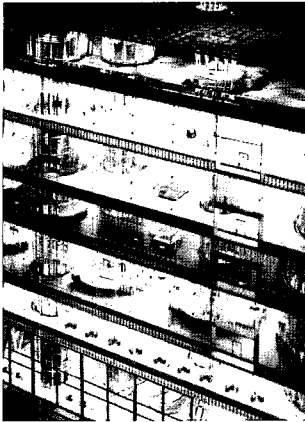


[그림 20] 플랫폼(P.B.D), 뉴욕 42번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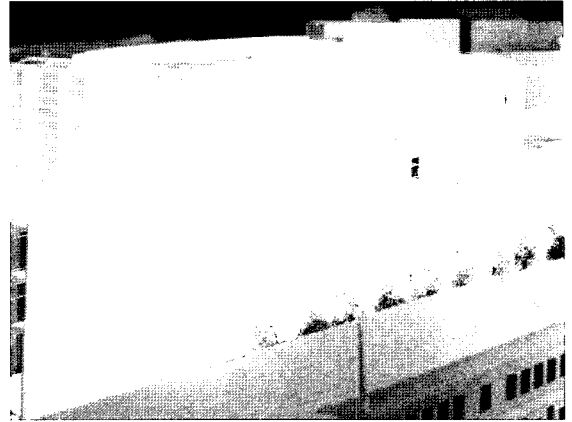


[그림 21] 알만(A.S Wappner), 뮌헨 교회

- 4) 현대 건축에서의 유리 사용을 여기서 말하는 2가지 개념에 한정하여 논할 수는 없으나, 본 글에서는 현대 건축의 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 5) 비단 이런 현상은 건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 전반적인 현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그 자체를 변화, 진행시켜나감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이토(T.Itō),센다이미디어텍



[그림 23] ortner & ortner, Museum of Modern Art

## 현대 건축의 역할

앞서 간단하게 표현 요소로서 외피, 표현 요소로서 유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유리는 독자적인 요소로서 외피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근대건축의 기술적 발달과 함께 건축에 도입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건축 공간의 새로운 개념, 경계의 모호함, 상호 관입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건축에 있어 유리의 사용은 앞서 말한 공간적 개념 혹은 건축물의 외피로서 가능성을 넘어 현대 문명 속에서 건축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현대 건축은 앞서 유리라는 재료의 사용을 통해 보았듯이 미디어(media) 정보 통신에 근거한 현대 문명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의 문화적 흐름과 결합하고자 함을 보았다. 이런 흐름은 비단 유리라는 재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 혹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험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 건축이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한계를 넘어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현대 문명과 관련지어 사용되고,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건축이 잃어버렸던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